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Sex-Role Development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Relationships among Sex-Role Stereotypes, Sex-Role Ideology,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유 가 효**
Yoo, Ka Hy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trapsychic processes of self socialization in sex role development during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sex-role stereotypes, sex-role ideology, sex-role identity, and self-esteem of 6th, 8th, and 10th graders and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se sex-role variables.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wice with an interval of three months. The methods of analysis were one-way ANOVA, χ^2 ,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1) Adolescents' sex-role stereotypes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sex typing. Subjects with low scores on sex-role stereotypes were more likely to show opposite sex typing. (2) Sex-role ideologies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sex typing. As Subjects agreed more with egalitarianism, they were more likely to exhibit opposite sex typing. (3) Adolescents' sex typing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ir self-esteem. The androgynous group exhibited the highest scores on self-esteem. (4) Path analysi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different processes between sexes in sex-role development. In the boys' sex-role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only masculinity contributed to self-esteem. Girls' masculinity also contributed most to self-esteem, but other sex-role variables such as femininity and sex-role stereotypes made some contributions to girls' self-esteem.

*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비사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I. 서 론

1960년대에 시작된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 성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많은 이론적 성과가 있었다. 성역할 발달에 대해 초기의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였으며, Kohlberg로 대표되는 인지발달이론은 성역할 사회화과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아동의 개념발달을 중요시하였다. 오늘날의 견해는 초기 인지발달적인 개념화를 토대로 하여 정보처리론적인 관점에서 성도식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도식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는 성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표준들 및 고정관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식(gender schema)에 일치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인도되어진다고 한다(Levy & Carter, 1989). 이것은 일종의 “자기-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행동과 고정관념을 부합시키려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시도로서 성별 전형화(sex typing)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이 자신의 성별을 알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알게 되는 5-6세 이후부터 이러한 성별 전형화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자기사회화과정에서 아동은 우선 그 문화에서 우세한 성역할 고정관념-남, 녀에게 각각 적합한 특성과 행동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 후 자신의 성에 적합한 측면을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통합시키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초기인지발달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학습이론 및 최근의 성도식이론에 이르기까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아동의 지식과 인지적 조직화가 그들의 성역할 발달에 강력한

결정요인들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의 획득 및 그 발달적 경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현존하는 우세한 문화적 규범으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확인과 획득과정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성역할 사회화의 목표로서 심리적 양성성 및 양성적 인간의 개념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1970년대 후반 이래 성역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고(이숙, 1982; 장미자, 1983; 권유경, 1984; 김태련·조혜자, 1986; 서영숙, 1986; 조성원, 1988; 홍연애, 1991), 성유형에 대한 연구는 유아 및 아동에 있어서는 성선택에 대한 연구가(김경미, 1981; 신경렬, 1982; 단현국, 1988),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정옥분, 1986). 또한 우리나라 문화적 규범에 입각한 성역할 검사척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김영희, 1988; 정진경, 1990; 장하경, 서병숙, 1991).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각각 별개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와 그것이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역할 정체감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개인의 성역할 사회화의 정신내적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경제구조 및 가치관 변화와 함께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변화하고 있는 바 이것이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이 갖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성역할 “자기사회화”의 내적, 인지적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성역할 개념과 성역할 정체감

1)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적 속성들을 남성,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들에 연결시키는 추론적 관계들의 구조화된 집합이다(Ashmore & Del Bioca, 1979). 성고정관념에 대한 아동의 이해는 흔히 그들의 성유형화된 행동의 획득과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Kohlberg, 1966, 1969; Mischel, 1966, 1970). 인지발달(Kohlberg, 1966)과 사회화습이론(Mischel, 1970) 양쪽에서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아동의 지식과 인지적 조직화가 그들의 성유형화된 행동의 강력한 결정요인들로 보여져 왔다(Carter & Patterson, 1982).

그러나 사회적 고정관념이 대인지각 및 행동에 관련되는 일반적 방식에는 개인차가 있다. Bem(1981)의 성도식 이론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Bem에 따르면 성을 자기도식에서 얼마나 두드러지는 차원으로 여기는지에 있어 개인차가 있으며 성유형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성도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도식적인 사람은 정보를 성별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성역할 자기사회화

경향이 더 강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성역할에 적합하게 행동하는지를 늘 의식하는 성도식적 아동은 여러 상황에서 성전형적 행동을 보다 일관성있게 나타낼 것이며 양성적이고 비도식적인 아동은 상황에 따라 특정 성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융통성있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

성유형화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한 중요한 요인은 인지적 일관성에 대한 욕구이다. 일단 중요한 신념체계들이 수립되고 그것이 우리의 타인들에 대한 견해 속에 병합되면 우리는 그것에 도전하는 정보보다는 우리의 신념들을 지지하는 것을 찾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정보를 여과시키고 차단하여 우리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여 지각적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성(gender)은 모든 사람들의 자아개념의 중심적인 구성요소이므로 이러한 신념체계는 개인적인 정체감에 밀접히 관련된다(Williams & Best, 1990b). 즉 자성에 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지발달이론, 사회화습이론, 성도식이론 등이 공통적으로 성역할 발달에 있어 그 사회문화의 성별특성 및 역할규정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인 이해를 중요시하여 성유형화를 설명하고 있으나, 성역할 개념들이 성과 연관된 행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하지 않았다. 사회인지이론의 입장에 있는 Bussey와 Bandura(1992)는 고정관념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한 개인이 그것과 일치하여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성역할 개념과 성유형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아동의 자기통제적 표준을 들고 있다. 즉 아동의 자기통제적 기능들이 발달하면서 일종의 예기적인 자아승인으로 기능하여 그들의 성

과 관련되는 표준들이 그들의 성과 연결한 행동들에 증대되는 영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성장화가설에 따르면(Hill & Lynch, 1983)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초기청소년기에 성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증대되며, 따라서 성과 관련되는 속성의 수준이 증대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고정관념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시기에 구체화되는 성역할에 대한 자아개념, 즉 성역할 정체감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나 성고정관념 등의 성역할 개념과 개인이 획득한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중에도 어린 아동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기 이후와 청소년기의 성고정관념이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몇몇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어린 아동에게서는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성역할선호 및 성역할행동을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더 나이는 아동들에게는 성고정관념에서의 융통성과 양성적 성유형화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Carter & Levy, 1988).

2)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정체감

Bussey와 Bandura(1992)는 아동의 자기통제적 표준은 부모, 또래 및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최근에 들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및 여성운동의 확산에 따른 성평등주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기통제표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아동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소년보다는 소녀들에게 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남성 및 여성에게 적합한 행동 및

그들의 관계에 관한 규범적인 신념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성별에 기초한 노동의 분업, 책임들, 행동들에 대해 더 우월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변화하는 상황에서 남녀간의 태도차이 및 여성들간의 태도차이를 식별하는데 보다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Kalin & Tilby, 1978). 성역할 고정관념이 문화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반영한다고 보면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가까운 신념의 반영이고 따라서 남녀의 입장차이를 첨예화시키기 때문이다.

Williams와 Best(1990b)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에서의 변이가 개인의 성역할 자아개념, 즉 성역할 정체감과 체계적으로 관련되므로 보다 남성적인 남자와 보다 여성적인 여자는 비교적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을 가지기 쉬운 반면 양성적인 사람은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신념을 가지리라고 시사하였으나 그들의 연구결과는 그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Galambos등(1990)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높은 수준의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소년들이 보다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Hardie와 McMurray(1992)는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를 시사하면서 여성성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와, 남성성은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남녀간의 태도의 차이 및 여성들간의 개인적인 차이를 통해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2.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성역할 정체감은 일종의 성역할 자아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믿는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자기지각이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그 근원을 유아기에 발달하는 성정체감(gender identity)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성역할 발달의 결과로서 자기지각이 증대되는 아동 후기 및 청소년기에 이르러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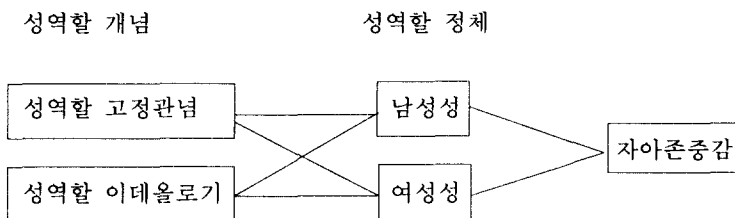
성역할 정체감과 개인의 심리적 복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문헌들은 세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유형화모델(Kagan, 1964; Mussen, 1969), 양성성모델(Bem, 1974, 1979; Spence & Helmreich, 1978), 그리고 최근의 메타분석적인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는 남성성모델(Bassoff & Glass, 1982; Taylor & Hall, 1982; Whitley, 1983)이 그것들이다. 전통적인 모델은 남성은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 여성은 여성성에 대한 동일시가 정신건강에 유의하다고 가정한다. 대조적으로 양성성모델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높은 양성성을 가지는 것이 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기 쉽다고 주장한다. 한편 남성성모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인들에게 남성성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본다. 대학생 및 성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성모델을 지지하는 증거가 보다 압도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델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분명하지 않다. Allgood 등(1991)은 그들의 연구에서 국민학교 아동에서는 양성성모델이, 청소년들에게서는 남성성모델이 지지되었다고 보고한다.

자아존중감은 성인들(Coopersmith, 1967) 및 청소년들(Rosenberg, 1965)의 정신건강에 매우 훌륭한 예측요소이며 심리적 복지의 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성역할 발달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서 청년기에 접어드는 초기 청소년기에 소녀들이 더욱 자의식적이며 남아들보다 더 낮은 존중감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다(Rosenberg & Simmons, 1975; Simmons, Blyth, Van Cleave, & Bush, 1979).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여아들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동안 감소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Hirsh & Rapkin, 1987; Perterson & Ebata, 198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를 기초로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을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통해서 규명하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 및 의식화의 흐름 속에서 남아와 여아의 성역할 발달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동과 청소년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아동과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아동과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의 국민학교 6학년 아동 178명, 중학교 2학년 189명, 고등학교 1학년 18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학군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두 개의 큰 학군에서 학군마다 각각 국민학교 1개, 남녀중학교 각 1개, 남녀고등학교 각 1개를 뽑아 두 개 국민학교에서 6학년 2개 학급씩을, 4개의 남녀중학교에서 2학년 1학급씩을, 4개의 남녀고등학교 1학년 각 1학급씩을 선정하였다.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분포

국민학교(6학년)		중학생(2학년)		고등학생(1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89	89	90	99	89	98

예비조사는 1992년 3월 국민학교 아동의 문항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6학년 1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조사는 1, 2차에 걸쳐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199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각 학교를 방문, 담임교사에게 부탁, 수업시간 중에 작성하도록 하였고, 1차 조사시에 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검사, 성역할 이데올로기검사, 개인 및 가족환경조사이다. 2차 조사는 1992년 10월에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내용은 성역할 정체감검사와 자아존중감검사, 개인 및 가족환경에 관한 사항이다. 동일인 확인을 위해 이름 및 학번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1, 2차 어느 한쪽이든 부실기재된 경우나 조사일에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554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1, 2차에 나누어 조사한 이유는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을 때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 응답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로는 성역할 고정관념검사, 성역할 이데올로기검사, 성역할 정체감검사, 자아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으며 기타 개인적인 사항 및 인구학적 질문 등이 첨가되었다.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검사는 직업역할, 가사활동, 성격특성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업역할은 선행연구들(서영숙, 1986; 조성원,

1988)에서 제시된 남성직업 17개, 여성직업 11개에 대해 남자의 직업으로 생각하는지 여자의 직업으로 생각하는지 남녀 모두의 직업으로 생각하는지의 3개 범주로 응답자의 반응을 물었다. 가사활동은 7개의 여성의 일과 3개의 남성의 일에 대한 반응을 역시 3가지 범주로 조사하였다.¹⁾ 성격특성에 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정진경의 연구(1990)와 장하경과 서병숙의 연구(1991) 결과에서 판정된 남성성에 관한 문항, 여성성에 관한 문항들을 합하여 남성성문항 25, 여성성 문항 25개로 구성하고 세 범주로 물었다. 각 영역별 고정관념의 측정은 각각 각성의 직업, 가사활동, 성격특성으로 간주되는 바에 고정관념적인 응답을 했을 때 1점을 주어 점수화하고 전체 성역할 고정관념은 각 영역별 고정관념을 그 영역의 항목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출한 후 합산하고 백분을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2) 성역할 이데올로기

Kalin과 Tilby(1978)가 사용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관한 5개 영역의 30개 진술문 가운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남성, 여성의 직업역할 및 능력, 부모책임에 관한 문항 12개를 선정, 번안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신뢰도계수는 Cronbach $\alpha=.93$ 으로 나타났다.

3) 성역할 정체감

1차 조사의 성역할 고정관념 50개 문항 가운데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남성특성으로 간주한

문항 21개, 여성특성으로 간주한 문항 21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의 두 문항을 첨가하여, 총 44개의 문항을 구성,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남성성, 여성성 점수를 산출하고 중앙치 분리법을 이용, 성역할 유형을 추출하였다.

4) 자아존중감

Coopersmith의 SEI를 번안하여 김경연(1987)이 만든 아동용 자아존중검사를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는 $\alpha=.91$ 로 나타났다.

5) 개인 및 가족환경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 및 가족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성적수준, 가족형태, 출생순위, 형제수와 구성,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집의 소유형태, 주관적 생활수준을 조사하였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집의 소유형태, 주관적 생활수준을 서열 점수화하여 합산, 산출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신뢰도, 이원 및 삼원 변량분석, χ^2 을 산출하였으며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시도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성역할개념과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

1) 성역할 고정관념검사의 영역별 세부 내용은 본 연구자의 다른 논문(1994)에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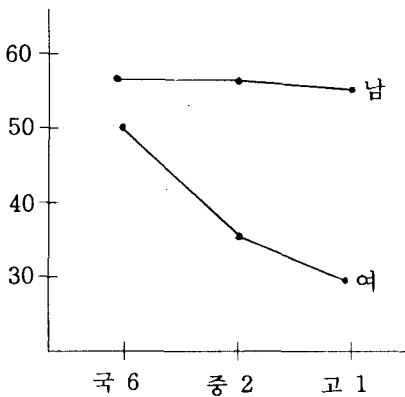
1)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학년별, 성별 변량분석을 통해 고정관념의 변화 양상을 보면 학년과 성에 따른 각각의 주효과(학년의 주효과: $F=21.49, p<.001$, 성의 주효과: $F=151.61, p<.001$)가 있어, 전반적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고정관념점수는 감소하였고 특히 성차가 뚜렷하여 예측했던 대로 여학생의 고정관념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표 2). 그러나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으

로서($F=13.38, p<.001$) 학년에 따라 고정관념의 감소가 나타난 것은 여학생의 고정관념의 감소가 현저한 때문이며 실제로 남학생에 있어서는 아동 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동안 고정관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그림 2). 이는 모든 연령집단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선행연구가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지지되는 결과이지만 여학생의 경우 현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보인 것은 성역할이 남녀에게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시사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표 2〉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의 학년별, 성별 평균

	학 년					
	국 6		중 2		고 1	
	남	여	남	여	남	여
성역할 고정관념	56.67	50.00	55.67	35.67	54.33	31.33
성역할 이데올로기	32.67	49.61	33.69	54.68	37.37	55.27
성역할 정체감(남성성)	86.20	74.08	83.45	75.45	81.68	78.01
성역할 정체감(여성성)	76.15	92.55	79.61	88.09	87.58	90.97
자아존중감	17.96	17.31	16.47	14.98	16.49	1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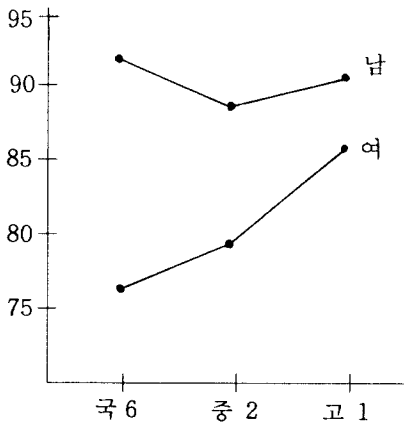


〈그림 2〉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보다 많은 특권과 위신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동기는 남아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고 여학생은 그 반대의 경우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역할 정체감은 남학생은 남성성($p<.001$)이 여학생은 여성성($p<.001$)이 현저하게 높아 전통적인 성유형화를 보여주었으나(표 2), 남학생에게서는 남성성(83.70)과 여성성(81.41)의 평균의 차이가 적은 반면 여학생에게서는 남성성은 낮고 여성성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여성성에 있어서 학년과 성의 각각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F=5.79, p<.01$)가 있어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성성이 증대하였으나 여학생에서는 국민학생의 여성성이 가장 높고 중학생의 경우 가장 낮으며 고등학생에서 다시 상승하였다(그림 3). 남성성에 있어서는 성의 주효과($F=24.36, p<.001$)만 있고 학년의 주효과 및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그림 3〉 여성성에 대한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

이를 다시 중앙치분리법에 의해 성역할 정체감 유형화를 통해서 보면 남학생은 남성성유형(36.1%)이 가장 많고 미분화(25.5%), 양성성(23.5%), 여성성유형(14.9%) 순이며 여학생은 여성성유형(39.9%), 양성성(22.1%), 미분화(21.7%), 남성성(16.4%) 순이다. 다시 이를 성을 통제하고 학년별로 보면 (표 3, 표 4) 유의한 차이를 보여($p<.05$) 남학생에 있어 남성성유형은 국민학생에게 가장 많고 고등학교로 가면 남성성유형은 감소한 대신 여성성유형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남성성유형의 증가를 나타내고 여성성유형은 중학생에서 낮을 뿐, 국민학생과 고등학생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 성별강화가 일어난다는 성강화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며, 이 시기 동안 성역할의 동조적 수준에서 의식적 수준으로서 발달이 일어난다는 Block(197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서 성고정관념의 변화는 없지만 자

〈표 3〉 남학생의 학년별 성유형

	국 6	중 2	고 1	계
양성성	16 (18.8)	24 (27.6)	20 (24.1)	60 (23.5)
남성성	39 (34.9)	27 (31.0)	26 (31.3)	92 (36.1)
여성성	8 (9.4)	10 (11.5)	20 (24.1)	38 (14.9)
미분화	22 (25.9)	26 (29.9)	17 (20.5)	65 (25.5)
	85	87	83	255

()안의 수치는 백분율

$\chi^2=13.40, df=6, p<.05$.

〈표 4〉 여학생의 학년별 성유형

	국 6	중 2	고 1	계
양성성	24 (27.6)	18 (18.8)	20 (20.4)	62 (22.1)
남성성	6 (6.9)	20 (20.8)	20 (20.4)	46 (16.4)
여성성	38 (43.7)	32 (33.3)	42 (42.9)	112 (39.9)
미분화	19 (21.8)	26 (27.1)	17 (16.3)	65 (21.7)
	87	96	98	281

()안의 수치는 백분율

$\chi^2=12.87, df=6, p<.05$.

기지가이 보다 정확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여성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지면서 여성성의 고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 (Galambos, Almeida, & Peterson, 1990)와도 일치하는 바 여성성이 사회에서 특히 중요시되거나 강력한 속성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성에서의 극적인 증가를 보여주지 않는지 모른다. 소녀들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열등한 것과 여성이라는 것과 관련된 불이익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성의 구성원이 되기가 어려움을 발견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유형화된 속성들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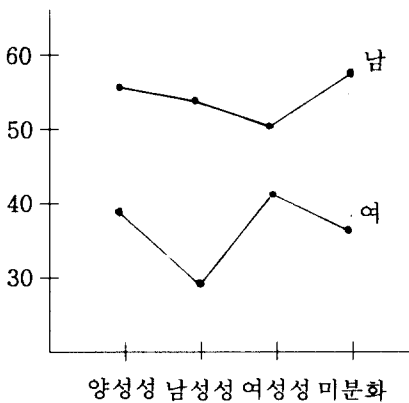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문제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과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예측했던 대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5.42, p<.001$). 즉 남성성유형을 보고한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

관념이 현저히 낮았으며 여성성유형을 보고한 남학생의 고정관념이 낮았다(그림 4). 이러한 결과는 성도식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자신의 전통적인 성유형과 반대되는 속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용이함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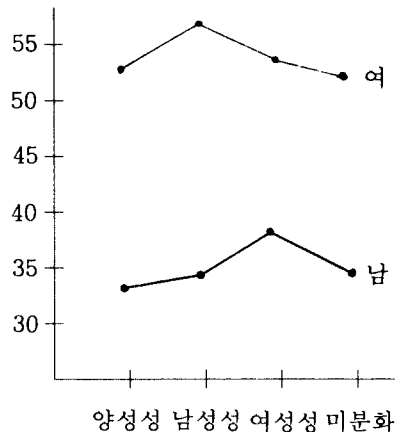
2)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정체감

연구문제 2를 검토하기 앞서, 본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년별, 성별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각각의 주효과(학년: $F=8.93, p<.001$; 성: $F=671.35, p<.001$)만을 나타냈다(표 2 참조). 즉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민학생이 전통적인 태도를, 중고등학생은 비슷하게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정체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정체감 유형별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그림 4〉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성과 성역할 정체감유형의 상호작용



〈그림 5〉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과 성유형의 상호작용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F=2.91, p<.05$) 남학생에서는 여성성유형이, 여학생에서는 남성성유형이 근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그림 5). 남녀 모두 나머지 유형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태도를 보인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전통적인 성유형과 반대되는 성유형을 적극적으로 인정, 채택하거나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2.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별로 자아존중감의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주효과는 없었으나 학년별 주효과($F=6.93, p<.01$)가 있었고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으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2 참조).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별, 학년별, 정체감 유형별로 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성유형의 주효과만 있고($F=8.89, p<.001$) 성과 성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에 있어 남녀가 비슷하게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양성성의 경우 가장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정옥분, 1986; 정진경, 199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대해 성×학년×성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어($F=3.68, p<.001$; 표 5), 남학생의 경우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양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여학생의 경우 국민학생과 고등학생은 남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중학생은 양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 및 정신건강 면에서 본다면 남학생과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양성성모델이, 국민학교나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는 남성성모델이 지지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학생에 있어서 양성성유형과 남성성유형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학교 남학생의 경우 특히하게 여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나 집단에 속하는 사례수(8)가 적기때문에 통계적 의미는 다소 떨어진다. 여학생의 경우 성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점수차이가 보다 크며 남학생들보다 오히려 남성특성에 대한 가치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양성성유형보다 여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여겨지는 남성성을 적극 추구하는 유형과 전통적인 여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두 집단으로 나뉘

〈표 5〉 성, 학년, 성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상호작용효과)

유형	남				여			
	국6	중2	고1	계	국6	중2	고1	계
양성성	18.81 (16)*	17.33 (24)	18.40 (20)	18.08 (60)	18.21 (24)	22.22 (18)	14.70 (20)	18.24 (62)
남성성	18.05 (39)	16.59 (27)	17.35 (26)	17.42 (92)	20.67 (6)	14.40 (20)	17.00 (20)	16.35 (46)
여성성	19.00 (8)	15.40 (10)	14.35 (20)	15.61 (38)	17.05 (38)	13.69 (32)	16.24 (42)	15.79 (112)
미분화	16.95 (22)	15.88 (26)	14.12 (17)	15.78 (65)	16.16 (19)	12.00 (26)	13.38 (16)	13.66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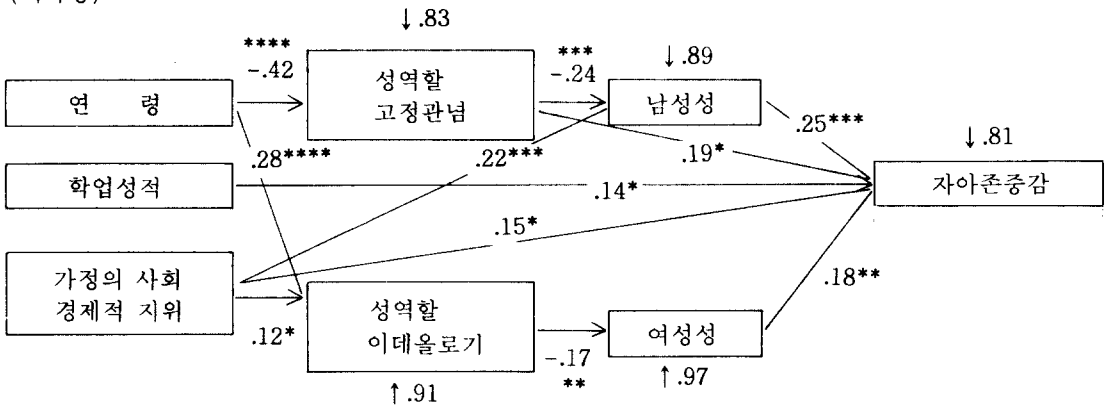
* ()안의 수는 사례수.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자중학생의 경우 양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높고 나머지 세 유형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매우 낮는데 이런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하나의 해석은 새로이 개편되어진 가정교과서가 성역할의 문제를 중 2과정에서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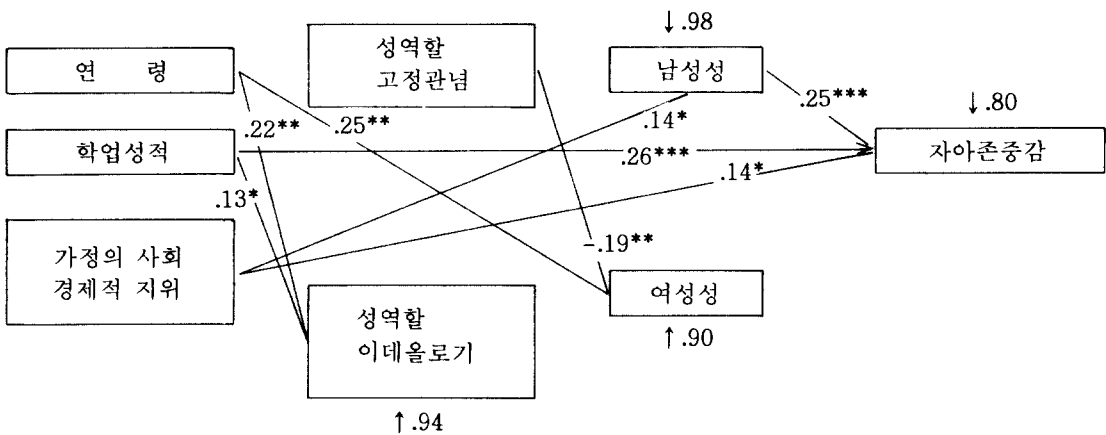
4. 성역할발달의 인과모형의 검증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의 인과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모든 변수에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성역할발달상에서 남녀가 다름을 시사했으므로 성별로 각각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6).

〈여학생〉



〈남학생〉



〈그림 6〉 성역할발달의 인과적 모형

여학생의 경우를 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평등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로 이행함을 보여준다. 남학생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성고정관념의 변화가 없으며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만 연령증가와 함께 보다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평등주의적이다.

한편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들의 남성성에,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여성성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남성성이 높으며 평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할수록 여성성이 낮다.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들의 여성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여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에 기여하지 않는다. 연령은 여학생의 경우 그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남성성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데 반해 남학생에 있어서는 여성성의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 성역할 정체감 발달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이데올로기 등 성역할 개념들의 영향은 여학생에게서 보다 크고 남학생에서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때 성역할 고정관념은 자신의 성과 전통적으로 일치하는 성유형을 채택하는데 기여하기 보다 반대 성의 특성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역할의 자기사회화에 있어 자기통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인 복지를 나타내주는 자아존중감의 설명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 남성성, 여성성이 다같이 기여하며 남학생의 경우는 남성성만이 기여한다. 여학생에게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가치있게 평가되는 상대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격특성 속에 병합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성과

관련되는 특성의 수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과 약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은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추구하고 자족하는 하위집단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녀 모두에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자아존중감에 기여하는데 반해 학업성적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로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과정이 단일한 과정이 아니고 성에 따라 상이한 복합적인 과정임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역할 발달에 있어서는 일찌기 거론되어 온 또래 및 부모의 영향, 매스 미디어의 영향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의 영향이 다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 동안의 성역할 발달을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연령증가와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의 감소가 나타났지만 그것은 여학생의 경우일 뿐이며, 남학생에게서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에서의 성차가 현저했다. 이것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에서의 남녀차별을 정당화 시키는 기제로 작용해 왔음을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남녀간, 학년간에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두드러지게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본 조사대상자의 정체감 유형은 남학생은 남성성유형이 여학생은 여성성유형이 가장 많아 전통적인 성유형화를 보여주었으나,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남학생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여성성유형이 증가했으며 여학생은 남성성유형이 증가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에 있어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들의 남성성 정체감과만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여성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성간에만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가 자신의 전통적인 성유형을 채택, 조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성의 특성을 자신 속에 병합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도식이론 뿐 아니라 Bussey와 Bandura (1992)의 사회인지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성역할 정체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여학생의 여성성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평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질수록 낮은 여성성을 보고했다. 남녀차별에 강하게 반발하는 여학생이 여성성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학생의 경우는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역할 발달이 본 조사대상자들의 심리적 복지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에 갖는 관계를 통해서 유추해보면 남녀 모두 양성성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과 여학생의 경우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기여하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그들의 남성성만이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성역할 발달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변이이다. 이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에 있어 남녀가 상이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운동의 확산 및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문제의 제기는 여학생들의 의식화를 촉진하여 기존의 성고정관념 및 전통적 성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고 그들 자신의 성역할 발달에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에서의 여성의 실제적인 지위향상도 미미할 뿐더러 성취지향적인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성에 대한 평가가 낮고 남성적 특성이 더욱 더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일종의 이중속박(double bind) 상황에 놓여 성역할 발달상의 심리적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여학생들은 성차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는 것과 더불어 남성성과 여성성에 동등하게 가치를 부여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가치가 주어지는 남성적 특성을 더욱더 인정하고 여성성의 문화적 평가절하를 스스로 더 큰 정도로 내면화하는지 모르며, 이것이 청소년기 이후 여성들의 심리적 장애가 증대하는 것과 관련될지 모른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성역할 발달은 인지발달적인 과정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양성관계에서 남녀간의 기대의 차이 및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간의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교육은 물론이려니와 현실적으로 상응하는 여성의 지위변화와 기회균등, 여성성의 가치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일어나는 성역할발달을 성역할개념에 의한 자기사회화의 과정으로 보고 인지적 요소간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종단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데 기본적인 제한점이 있다. 두번째의 제한점은 전국적인 표집이 아니고 한 지역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개인의 내적, 인지적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청소년기의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들 즉 부모, 또래, 매스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과 그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유경(1983). 텔레비전시청과 어린이들이 갖는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남녀의 인성별 특징과 직업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미(1981). 취학전 아동의 성역할식별 및 선호발달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개발연구. 숙명여대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 27호.
- 김태련·조혜자(1986). 한국 아동의 성고정관념 발달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3.
- 단현국(1988). 한국 유치원아동의 성역할선호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1, 123-136.
- 서영숙(1986). 국민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과 성평등 역할교육에 따른 변화.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 25호, 185-217.
- 신경렬(1981). 유아의 성역할 선호성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1994). 아동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에 관한 연구. 계명행동과학, 제7권, 제1호, 131-140.
- 이 숙(1981). 학동기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자(1983). 아동의 성특성 고정관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하경·서병숙(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4호.
-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 123-137.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사회 5-1.
- 조성원(1988). 직업 및 활동에서의 성고정관념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1, 103-112.
- 홍연애(1991).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발달과 이야기 유형의 효과. 아동학회지, 12권,

2 頁。

- Allgood-Merton, B., & Stockard J. (1991). Sex role identity and self-esteem: A comparison of children and adolescence. Sex Roles, 25, Nos. 3/4.
- Ashmore, R. D., & Del Boca, F. K. (1981).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es and Intergroup Behavior, Hillsdale, NJ:LEA.
- Bassoff, S., & Glass, G. V.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s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twenty-six stud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105-112.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 (1979). Theory and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A reply to the Pedhazur-Tetenbaum and Locksley-Colten critiq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47-1054.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lock, J. H. (1978). Another look at sex differentiation in the socialization behaviors of mothers and fathers. In J. Scherman & F. Denmark(Eds.), The Psychology of Women: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New York: Psychological Dimensions.
- Bussey, K., & Bandura A. (1992)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gender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3, 1236-1250.
- Carter, D. B., & Patterson C. J. (1982). Sex roles as social convention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nceptions of sex-role stereotype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12-824.
- Carter, D. B., & Levy, G. D. (1988). Cognitive aspects of children's early sex-role development: The influence of gender schemas on preschoolers' memories and preferences for sex-typed toys and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9, 782-793.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
- Galambos, N. L., Almeida, D. M., & Peterson, A. C. (1990). Masculinity, femininity, and sex role attitudes in early adolescence: Exploring gender intensification. Child Development, 61 (6), 1905-1914.
- Hardie, E. A., & McMurry, N. E. (1992). Self-stereotyping, sex role ideology, and menstrual attitudes: A social identity

- approach. Sex Roles, 27, Nos. 1/2.
- Hill, J. P., & Linch, M. E. (1983). The intensification of gender-related role expecta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J. Brooks-Gunn & A. C.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Psychosocial Perspectives(pp. 201-228), New York: Plenum.
- Hirsch, B. J., & Rapkin, B. D. (1987).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58, 1235-1243.
- Intons-Peterson, M. J. (1988). Children's Concepts of Gender, Norwood, NJ: Ablex.
- Kagan, J. (1964). Acquisition and significance of sex-typing and sex-role identity.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alin, R., & Tilby, P. J.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2, 731-738.
- Kohlberg, L. (1966). A cognitive 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82-173.
- Levy, G. D., & Carter D. B. (1989). Gender schema, gender constancy, and gender-role knowledge: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in preschoolers' gender-role stereotype attribu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444-449.
- Mischel, W. (1970). Sex 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Wiley.
- Mussen, P. H. (1969). Early sex-role development. In D. A. Goslin(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McNally.
- Petersen, A. C., & Ebata, A. T. (1987). Gender related change in self image during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Tokyo.
- Rosenberg, F. R., & Simmons, R. G. (1975). Sex differences in the self-concept in adolescence. Sex Roles, 1, 147-15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mons, R. G., Blyth, D. A., Van Cleave, E. F., & Bush, D. M. (1979). Entry into early adolescence: The impact of school structure, poverty, and early dating on self este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948-967.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es, and Anteceden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Stoddart, T., & Turiel, E. (1985). Children's concepts of cross-gender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56, 1241-52.

Taylor, M. C., & Hall, J. A.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sychological Bulletin, 92, 347-366.

Whitley, B. E. (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5-778.

Williams, J. E., & Best, D. L. (1990a). Measuring Sex Stereotypes-A Multination Study. Newbury Park, C.A.: Sage.

Williams, J. E., Best, D. L. (1990b). Sex and Psyche-Gender and Self Viewed Cross-Culturally. Newbury Park, C.A.: Sage.

Williams, J. E., Best, D. L. (1990b). Sex and Psyche-Gender and Self Viewed Cross-Culturally. Newbury Park, C.A.: Sage.